



2일 서울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전북출신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송하진도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전혜숙, 김병관, 박용진, 이수혁,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민의당 박주현, 김중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하여 전라북도의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전북도 국비확보 절박... "SOS 요청"

수도권 전북출신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

송 지사 "국회단체서 4500억원 추가증액 절실"

국회의원에 필수 예산사업 지원·협조 당부

전북도는 2일 국회에서 전북 출신 수도권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8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전혜숙, 김병관, 박용진, 이수혁,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민의당 박주현, 김중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조방안과 지역현안 및 주요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전라북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 전북출신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직접 논의된 필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는 새만금 SOC 구축사업(5,610억원)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169개국 청소년 5만명의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본교통 SOC 조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타면제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 기본 및 실시단계 용역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 국비 146억원 반영도 건의했다.

지반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

된 사업으로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을 국비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국회 예산 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예산삭감 방지 및 증액 대응활동 기간이 촉박한 상황으로 전북이 2018년도 국가예산 6조 5천억원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단체에서 4,500억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막바지 단계까지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줄 것"을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잼버리특별법 제정 위한 경주

송하진 지사, 정당별 주요 국회의원 잇따라 방문... 법안 필요성·시급성 강조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 개최하는데 초석이 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수시 접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전북발전의 지렛대가 될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잼버리 행사장 기반시설 조기 확충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 행정안전위원회)과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부총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 여성가족위원회)을 잇따라 방문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비롯해 주요 쟁점, 세부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법안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이 시급하므로 관련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대회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대회 부지조성 등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2018년 초에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한국식품연, 오늘 개청식 개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

한국식품연구원이 3일 전북 전주·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연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원주 혁신도시 내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5300명)이 모두 이전을 마치고 됐다.

이 자리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송하진 전북지사, 박성일 원주군수, 원광연 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을 포함한 유관기관장 등 약 500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부지 14만8035㎡, 5만1018㎡)로, 506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2187억 원을 투자해 2015년 11월에 착공 후 지난 9월에 완공했다. /김진성 기자

"고등학교 의무급식 실현" 한 목소리

전주·군산 등 도내 5개 도시 학부모 운동본부 발족

전북 5개 시(市)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 의무급식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5개 도시(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시) 249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은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칭 '고교의무급식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북도와 전북도 교육청·지자체는 고교 의무급식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시군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을 제외하곤 학부모들이 급식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북은 전국 어느 곳보다 높은 초중고교 의무급식을 펴고 있다"며 "그결과 정읍과 완주

등 다른 9개 시군의 초중고 아이들은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주와 군산·익산·남원·김제 등 5개 지역 고교생 약 3만4000명은 여전히 학부모 부담으로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며 "수업료와 기숙사비·보충수업비 등 기꺼이 학부모 경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5개 시장에게 고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고교 의무급식 예산(100억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담을 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성민 기자

시군 공무원 빅데이터 활용역량 높인다

전북도, 21일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 실시

전북도는 도 공무원에 이어 시군 공무원의 빅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일부터 21일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강연'을 실시한다. 이는 도내 시군 공무원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이번 강연은 11월 3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8일 진안군, 16일 임실군·순창군, 17일 익산시, 21일 전주시에서 진행되며, 다른 시군 공무원도 희망일에 신청을 받아 강연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강연자는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전문가이자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의 송규봉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황명권 연구원,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이사이자 빅데이터컨설팅사인 (주)빅스터 이현중 대표 등 빅데이터 전문가들로 빅데이터의 주요개념과 활용사례를 알기쉽게 강연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의 빅데이터 활용과정,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무 빅데이터 토크데이' 운영을 통해 도공무원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도시군 빅데이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 해당 지자체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해안 웹소셜분석, 민원·CCTV 분야의 표준분석모형을 직접 분석하는 등 시군 담당자의 빅데이터 분석역량과 실무 능력을 높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과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내 공무원의 빅데이터 기본역량강화와 빅데이터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강연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